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으로 느끼는 사진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감각을 깨우다'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 지하철

04 | 시선집중

- ▶ [성명서]시각장애인 탑승 거부한 에버랜드 상대 승소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06 | 테마기획

- ▶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의 문자, 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08 | 인터뷰

- ▶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점검한다!
웹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 김형섭 님

10 | 포커스

- ▶ 손으로 느끼는 사진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감각을 깨우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 시각장애 중 ‘저시력’에 대하여
박관찬(시각1급_경상북도 포항시)

13 | 월드 리포트

- ▶ 영국, 시각장애인도 ‘버즈비트’로 지휘를 느껴요!
- ▶ 나이지리아, 첫 시각장애인 축구대회 열어

14 | 뉴스앨범

-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42기 자립생활교육 워크숍 실시
- ▶ 제39회 전국 흰지팡이 날 행사, 성황리에 개최!
- ▶ 단양지질공원으로 탐방을 떠나요!
- ▶ 제92회 점자의 날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 시각장애인이 항공기 · 선박을 이용할 때

우리의 이동을 편하게 해주고
목적지에 도착할 정확한 시간을 예측해주는 대중교통,
지하철만한 것이 없죠.

지하철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지하철

① 4
② 5
③ 6

점자 일람표																
자 음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된소리 ○○ ○○ ●●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 ●●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쓰받침 ○○ ○○ ●●	
모 음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ㅐ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ㅐ ●● ○○		ㅑ ○○ ●●		ㅓ ○○ ●●	
약 자	가 ●● ○○	나 ●● ○○	다 ○○ ○○	마 ●● ○○	바 ○○ ○○	사 ●● ○○	자 ○○ ○○	카 ●● ○○	타 ●● ○○	파 ●● ○○	하 ○○ ○○	억 ●● ○○	언 ○○ ●●	얼 ○○ ●●	연 ●● ○○	
	열 ○○ ●●	영 ●● ○○	옥 ○○ ●●	온 ○○ ●●	웅 ●● ●●	운 ●● ○○	울 ●● ●●	은 ○○ ●●	을 ○○ ●●	인 ●● ○○	것 ○○ ○○ ○○					
약 어	그래서 ●●○○ ○○○○		그러나 ●●●● ○○○○		그러면 ○○○○ ●●○○ ○○○○		그러므로 ●●○○ ○○○○ ○○○○		그런데 ●●●● ○○○○ ○○○○		그리고 ●●○○ ○○○○ ○○○○		그리하여 ●●○○ ○○○○ ○○○○			
숫 자	수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0 ○○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운뎃점 (.) ○○○○ ●●●●		말줄임표(...) ○○○○○○○○○○○○○○○○○○○○			말줄임표(...) ○○○○○○○○○○○○○○○○○○○○			소괄호() ○○○○○○○○○○○○○○○○○○○○			대괄호[] ○○○○○○○○○○○○○○○○○○○○		
영 어	영어시작 ○○ ●● ●●	끝 ○○ ●● ●●	대문자 ○○ ○○ ●●	a ●● ○○ ○○	b ●● ●● ○○	c ●● ○○ ○○	d ●● ●● ○○	e ○○ ○○ ○○	f ●● ●● ○○	g ●● ○○ ○○	h ●● ●● ○○	i ○○ ○○ ○○	j ●● ○○ ○○	k ○○ ○○ ●●	l ●● ○○ ●●	
	m ●● ○○ ○○	n ●● ○○ ○○	o ○○ ○○ ●●	p ●● ●● ●●	q ●● ●● ●●	r ○○ ●● ●●	s ○○ ●● ○○	t ○○ ○○ ●●	u ○○ ○○ ●●	v ●● ●● ●●	w ○○ ●● ○○	x ●● ●● ○○	y ●● ○○ ○○	z ○○ ●● ●●	아포스트로피 , ○○ ○○ ○○	

* '나, 다, 마, 바, 사,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ㅋ, ㅌ, ㅍ 다음에 약자 영 ㅍ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성명서]

시각장애인 탑승 거부한 에버랜드 상대 승소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열렬히 환영한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직원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이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비교해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 삼성물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3년 4개월간의 법정 싸움을 이어간 끝에 승소한 것이고, 1인당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스틸 넘친다는 티익스프레스와 롤링 엑스트레인, 더블락스핀 등의 놀이기구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재판부는 시각장애인탑승 금지를 규정한 에버랜드내부 가이드북을 시정할 것도 명했다. “안전 가이드북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에 대한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정한 시력, 양손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 등의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판결한 사법부가 보여준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 나라 5백만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수호의 보루인 위상에 걸맞은 배전의 노력과 분발을 염원해본다.

2018년 11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의 문자, 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6개의 점으로 표현하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
점자는 송암 박두성 선생에 의해 1926년 11월 4일 반포되었는데요.
2018년 11월 4일, 한글 점자가 92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글자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며 읽을 수 있는 점자를 사용합니다. 6개의 점으로 한글을 표현하는 점자는 1926년 11월 4일 제생원 교사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이하 송암)에 의해 반포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 한글 점자가 없어 일본어 점자를 사용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송암은 1920년 이종덕, 전태환 등 8명의 제자들과 비밀리에 ‘조선어점자연구 위원회(육화사)’를 조직하여 한글점자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수의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 사용하는 점자, ‘훈맹정음’입니다.

해방 이후 ‘훈맹정음’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기호의 점자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경에는 당시 국립맹아학교의 이종덕, 전태환 두 교사와 재학생들의 한글 점자 맞춤법 수정이 이루어졌고, 1959년에는 ‘점자 악보기록법’이라는 번역물이 발간되어 최초로 악보를 점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점자연구활동은 1967년 7월 전국 맹학교 대표들이 모여 ‘한글점자연구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면서 점자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6개의 점이 모여 한 칸을 이루는 점자(세로축3, 가로축2)는 각 점에 1~6까 지의 번호를 붙여 사용합니다. 6개 점의 조합을 통해 총 64개의 점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조합들에 한글 자음, 모음 등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한글점자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점자규정에서는 풀어쓰기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한글, 수학, 과학, 음악, 컴퓨터 점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글점자를 기념하기 위한 11월 4일 '점자의 날'이 되면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점자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며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92주년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이룸센터에서는 11월 2일에 기념식과 세미나, 점자알리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92주년 점자의 날 기념식'에는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김호식 회장,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이 참석했으며, 점자 유공자 포상 및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점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비장애인 역시 점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점검한다! 웹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 김형섭 님

웹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직업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기업 엔비전스에서
웹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김형섭 님을 소개합니다.



Q. 안녕하세요. 이 일을 하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 제가 2009년 3월에 엔비전스에 입사해 일을 하게 되었으니 현재 9년 정도 됐네요. 그 전에는 점역교정사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Q. 웹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A. 웹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는 특정 웹 사이트나 모바일 등의 서비스를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사용해보고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우려되는 부분을 탐색 하는 것입니다.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접근성 지침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죠. 저희는 접근성 사업팀이며, 접근성 사업팀은 시각장애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음 웹이나 모바일 등 컴퓨터와 관련한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A. 1995년, DOS가 나왔던 시절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능 공부하는 등 컴퓨터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컴퓨터나 웹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었던 컴퓨터를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접근성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Q. 앞으로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정보 과목이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방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사실 저는 스크린리더 보급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 컴퓨터 교육을 받았던 세대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속도로 배움을 따라가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환경에 문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스크린리더를 활용해 시각장애인들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으므로,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정보 교육의 커리큘럼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컴퓨터의 아이콘이나 옵션 박스, 디자인 등 시각장애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섬세하게 가르쳐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웹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저희가 접근성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불편한 부분을 개선할 때에는 전체적인 디자인 등 기획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들의 기획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팝업 창이 띄워져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팝업창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Q. 김형섭 님처럼 웹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하는 시각장애인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국내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진로를 찾아가는데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 등을 통해 해외 정보를 많이 취득하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는 국내와는 다르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 모바일 접근성이 법적으로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팟캐스트 등도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콘텐츠를 활용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A. 이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비스를 다르게 해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나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추세입니다. 또 비장애인보다 시각장애인들의 IT 의존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고려되어 만들어진 서비스는 비장애인에게 더욱 편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느끼는 사진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감각을 깨우다’

눈으로 즐기는 사진전,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이명호 사진작가와 함께한 촉각 전시를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대학로에 위치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운영하는 이음센터에서 이색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감각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이명호 사진작가의 작품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전시였는데요. 전시장에는 이명호 작가의 심볼인 흰천을 나무 뒤에 대어 캔버스화 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각각의 그림 앞에 놓인 책자에는 그림에 대한 점자 설명과 설명에 맞는 축소 그림이 양각으로 제작되어 있었는데, 이 책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각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입구에는 전시를 설명하는 점자(확대본) 책자가 진열되어 있으며, 이 책자 옆에는 관람객들이 전시를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도슨트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시장 한 켠에는 관람객들이 이명호 작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그 동안의 활동을 담은 영상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이 전시를 관람한 시각장애인들은 “눈으로 보는 예술이라고만 생각해 시각장애인이 즐기기 어려웠던 사진 전시회인데, 작품을 손으로 만지고 점자 설명으로 이해하니 작품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감각을 깨우다’와 같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전시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시각장애 중 ‘저시력’에 대하여

박관찬(시각급_경상북도 포항시)

시각장애가 있다고 하면 크게 ‘맹’과 ‘저시력’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각 유형의 세부적인 특성과 정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빛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시력’은 잔존시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야나 시력의 정도에 따라 ‘저시력’의 유형도 다양해집니다.

이러한 저시력인 분들이 본인이 볼 수 있는 정도를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본인이 아닌 이상 안과 전문의라도 곧이곧대로 100% 공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거리를 볼 수 있는지, 시야가 어디까지 좁게 보이는지, 빛이나 색의 구분은 얼마나 되는지 등 시각장애인도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장애 특성에 최적화된 다양한 보조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따로 문서나 책자의 확대제작을 요청하지 않아도 돋보기나 확대 독서기(휴대용 포함)를 통해서 작은 글씨로 이루어진 원본을 어렵지 않게 확대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조기구를 통해 글을 읽더라도, 원문에 나와 있는 글씨의 체와 굵기 등에 따라 글을 이해하며 읽는 속도는 저시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글씨체가 있는 것처럼 저시력인 시각장애인도 선호하는 글씨체나 굵기가 있습니다. 저시력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글씨를 ‘크게+굵게’ 하면 보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자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일을 할 때,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대체도서 제작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시력인 학생들은 확대도서 제작을 신청할 때, 본인이 선호하는 글씨체와 굵기, 크기를 상세히 신청서에 입력합니다. ‘견고딕+굵게+15포인트’, ‘바탕+얇게+22포인트’ 등으로 학생들이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시력인 필자의 경우는 ‘바탕+굵게+최대한 크게’입니다.

글씨의 굵기 정도만 해도 저시력인 시각장애인에게 읽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글자 그대로 읽으며 지나가려고 해도, 저시력으로 인해 분명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필자가 중학생일 때, 도덕 중간고사에서 주관식 문항의 답이 ‘홍경래’였던 적이 있습니다. 답은 분명히 알았지만 제가 당시 답안지에 적은 답은 ‘홍경래’였습니다. 체점 결과 분명히 100점이었는데 딱 한 문제가 틀린 점수가 나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이유를 몰랐다가 성인이 되고서야 어느 드라마 기사를 보고 홍경‘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디자인된 굵기가 약한 글씨는 그런 세밀한 부분을 꼼꼼하게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ㄱ’을 ‘ㄷ’ 또는 ‘ㄴ’로 잘못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시험에서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편의제공 중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각장애인이 글씨체나 굵기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확대답안지의 경우에는 기입형 또는 표기형 중 선택할 수 있고, 확대문제지의 경우 문자 그대로 확대문제지의 ‘크기’에 대해서만 150% 또는 200% 등의 선택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신청해서 받아본 확대문제지는 과목명, 수험번호, 시험의 유의사항 등 중요부분은 고딕체로 굵게 되어 있고, 객관식 문제의 지문은 바탕체에 얇게 되어 있기도 하는 등 글씨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크기나 굵기 정도, 글씨체가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단어의 경우, ‘ea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제시된 글씨가 얇거나 굵기 등에 따라서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알파벳 ‘e’의 중간에 있는 선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선을 보지 못하면 ‘e’를 ‘c’로 잘못 읽을 수 있고, 그럴 경우 해당 영어단어는 ‘cat’가 됩니다.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읽다보면, 공무원시험에서 결과를 좌우하는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됩니다.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제시되어 있는 편의제공 항목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본인이 가진 장애에 맞는, 즉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는 제도, 특히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제공 대상자에게 맞춰져야지 오히려 그 대상자가 제도에 맞춰야하는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만 해도 타이틀 내에서 그 세부적인 특성과 정도는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예를 들어 확대도서 제작)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에서만뿐만 아니라 각 장애의 세부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국, 시각장애인도 ‘버즈비트’로 지휘를 느껴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버즈비트(진동으로 지휘자의 움직임
임을 인지하게 만드는 장치)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디뎠
습니다.

‘버즈비트’는 11월 9일 브리스톨에 위치한 공연장 ‘세인
트조지’에서 진행된 공연 ‘시각화된 소리를 위한 진동
(Vibration for Visualized Sound)’에서 처음으로 사용되
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이 ‘버즈비트’를 통해 처
음으로 지휘를 실시간을 느끼며 연주했습니다.

‘버즈비트’는 지휘자의 움직임을 무선신호로 연주자가
착용하고 있는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로 지휘자의 음악
적 해석을 연주자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반응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인데요.



기존 시각장애인들은 연주자가 ‘인이어 메트로놈’ 혹은 지휘자의 구음으로 합주를 이어갔기
때문에 연주자의 음악적 집중도가 떨어지고 관객들에게는 음악 감상의 방해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마림비스트 전경호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초
개발자 바하칸 마토시안을 만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제품을 개발
한 도미넌트 에이전시는 기술적인 보완 후 2019년 한국 공연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
습니다.



나이지리아, 첫 시각장애인 축구대회 열려

지난 8월, 나이지리아에서 11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
가한 시각장애인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경기는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 방식으로 10경기가 구성되었습니다. 특
히 여자 선수들은 대회를 위해 합숙 훈련을 받기도 했

는데요. 합숙 훈련에서는 공을 컨트롤하는 방법, 의사소통 및 드리블, 슈팅 방법 등에 대해
익혔습니다. 다이아몬드 여자 FC와 선샤인 여자 FC의 경기에서 팽팽한 접전 끝에 다이
아몬드 여자 FC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는데요. 나이지리아 시각장애인 축구팀을 결성한
Bina Foundation의 설립자 Ifeoma는 “앞으로 나이지리아의 시각장애인 축구팀이 국제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42기 자립생활교육 워크숍 실시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라남도 여수에서 42기 자립생활교육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자립생활교육은 매년 상·하반기 4개월 동안 중도시각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워크숍은 교육생 6명과 재활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워크숍은 자립생활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생이 직접 주도하여 계획, 실행하고 진행함으로써 자립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데요. 워크숍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9회 전국 흰지팡이 날 행사,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15일, 제39회 흰지팡이 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복지대회가 경상북도 구미의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행사는 10월 15일 흰지팡이 날과 전국시각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널리 알리고,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의 의지를 높이며, 상호 간 화합의 장을 이루기 위한 순서들로 채워졌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동 연합회 경상북도지부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 시각장애인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39회 흰지팡이 날을 축하합니다!



단양지질공원으로 탐방을 떠나요!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시각장애 10가정, 30명은 단양 지질공원 탐방을 떠났습니다.

참가한 가정은 단양에 도착해 구경시장을 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단양군 탐방에 나섰다. 바보 온달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온달 동굴 체험을 하고, 온달 동굴의 신비한 지질 명소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 보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단양과 관련된 OX퀴즈와 레크리에이션도 함께 했으며, 둘째 날에는 국내 최대 민물고기 수족관인 다누리 아쿠아리움으로 이동해 민물고기를 직접 만져보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한 가정들은 모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쳤으며 단양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제92회 점자의 날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제92회 점자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디지털시대의 점자와 정보접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강원명진학교 박성수 교사, 전 셀바스케어 임현섭 부장,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선희 주무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송지숙 학습지원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디지털시대의 점자와 정보 접근, 점자 자료 점역 및 출판 지침이라는 각각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한글 점자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항공기 · 선박을 이용할 때

항공기 이용의 경우 국내외 주요 항공사들은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안내, 탑승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안내소 또는 발권창구로 안내해주세요.

선박의 경우 매표와 탑승 및 착석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전을 위해 비상구의 위치와 화장실의 위치를 미리 알려주시고, 적절한 시간차이를 두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편의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마련이어서 용변이 급한 경우에도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8년 11월 220호

발행일 2018년 11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